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개관 18~4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

보존·계승·발전 위해 홍보 영상관·낙화봉 체험관·시연관 등 갖춰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안성면 덕유산로 856)이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 임원들과 안성 낙화놀이보존회(회장 박일원)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내빈인사와 테이프 커팅, 전수관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된 기념식에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이 지난 8일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 임원들과 안성 낙화놀이보존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낙화놀이를 제대로 보존하고 후손대대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주민여러분의 열망이 피워낸 자리, 무주군의 의지가 이뤄낸 자리라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낙화놀이의 역사를 아로새긴 전수관이 후손대대로 명맥을 잇는 기반이자 마을을 지탱하는 지주, 그리고 의미 있는 체험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무주 안성낙화놀이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 11억8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6월 착공, 올 5월에 완공이 됐으며 318.165㎡(대지 1,846㎡) 지상 2층 규모에는 홍보 영상관과 낙화봉 체험관, 낙화놀이 시연관, 사무실, 쉼터, 그리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한편, 무주 안성낙화(落花)놀이는 ‘줄불놀이’, ‘불놀이’라고도 하며 불꽃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낙화(落花)놀이’로도 불린다. 낙화놀이는 뽕나무 숯가루와 소금, 말린 쑥 등을 한지로 감싸 ‘낙화봉’을 만들고 그것을 긴 줄에 매단 뒤 불을 붙여 즐기는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로, ‘낙화봉’이 타오를 때 서서히 피는 불꽃과 숯이 타들어 가며 내는 소리, 그리고 그윽하게 번지는 쑥 향이 운치를 더해준다.

전수관 낙화놀이 보존회장인 박찬주 의장은 “유년시절 기억을 토대로 2006년 전북대학교 김익두 교수와 무주군의 노력에 의해 복원됐으며 이후 두분 리 낙화놀이보존회 회원들에 의해 전통 방식으로 전승·보존되고 있다.”

박찬주 의장은 “낙화놀이에 발굴과 보존에 혼을 불어넣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며 “전수관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상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낙화놀이는 2007년부터 해마다 무주군 마을로 가는 축제를 비롯한 반딧불 축제 등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비롯한 ‘채만금 아리랑 썸머 페스티벌’, ‘제90차 OECD관광위원회’, ‘진주함옥마을행사’, ‘서울 중앙전 장미축제’와 ‘영동 난계축제’ 등에도 참여해 선을 보인 바 있다.

2010년 3월에는 줄불놀이용 낙화봉과 그 제조방법이 특허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오늘부터 18일까지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10부제 시행

진안군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접종에 앞서 본인이 온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사전예약은 대상 인원이 많아 9일부터 18일까지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끝자리가 9(87.12.19.)인 사람은 9일 사전예약하면 된다.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연령대별 예약을 시행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모든 대상자(18~49세)에

대한 예약이 실시되며, 사전예약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 까지만다.

이는 1일 약 170만 명 내외로 대상자를 분산 예약하여 예방접종 풀림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접종기관은 예약자 본인이 원하는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에 앞서 원활한 시스템 준비 조치와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대상자 모집

무주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2년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 모델을 구축, 영농 조기정착과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에 군은 신기술을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5개 사업 분야에 참여할 청년 농업인을 모집한다.

이들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 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꼽힌다. 사업비는 1개소 당 5천만 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이다.

대상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해 만 18~40세 청년 농업인(1982년 1월 2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을 필한 청년이거나 면제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할 청년 농업인은 오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올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며 “농촌후계 인력 양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 핵심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방범 CCTV 확대 설치

장수군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및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방범 CCTV 확대 설치에 나선다.

6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달 확보한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현재 설치된 198개소 483대의 방범 CCTV 외에 15개소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장수군 관내 198개소 483대의 방범 CCTV가 24시간 관제되고 있으나 사각지역이 많아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으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상반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CCTV를 신규설치해 군민들의 안심귀가와 범죄 예방에 큰 역



장수군 CCTV관제센터.

할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죄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CCTV 설치 사업으로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우리 집 클리어’ 실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안성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우리 집 클리어(Clear)’를 실시했다.

이날 대상소에는 대정소무주지역자활센터,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무주군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복지분과 위원 13명이 함께 했다.

이후에는 민·관 연계협력 차원에서 반디나눔 후원금으로 도배와 장판을,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쉼대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집수리사업’을 연계해서는 보일러 설치 및 화장실 타일을 교체할 예정이다.

사업의 수혜자가 된 이 모 씨(55세)는 “삶이 고되니 집도 어지러왔는데 같이 치워주시고 집도 고칠 수 있도록 연결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집 클리어(Clear)”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주군 지

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저소득취약계층)을 선정해 지난 4월에도 무풍면 독거노인 가정을 치운 바 있다.

무주군 안성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황윤희 주무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민들의 정성이 보태지고, 기관 곳곳의 연계와 협력이 결실을 맺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담당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빛내주고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살고 싶은 진안 UCC 경진대회’ 공모 접수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9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살고 싶은 진안 UCC 경진대회’ 공모작품을 접수한다.

‘귀농·귀촌해 살고 싶은 진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은 이번 공모전은 자연이 좋아서 진안으로 온 사람,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소개, 널리 알리고 싶은 나만의 진안의 모습 등을 영상으로 만들면 된다.

대상 1편 상금 100만원, 입선 5편 상금 20만원이 주어지며, 오는 11월 중 선정해 개별통지 및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진안군을 아는 개인 또는 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7분 내외의 순수창작물을 참가신청서 및 기타 서류와 함께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대표메일(refarm_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을 경계 설정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올해 마을 간 경계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계 설정을 위해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마을 경계 설정은 그간 마을 간 경계가 불분명해 전입신고, 각종 선거업무 및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77개 법정리 경계를 바탕으로 행정의 최소 단위인 316개 마을의 경계를 설정하고 마을 단위로 지적경계도와 공간정보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자료 검토와 측량 등을 통해 마을 간 경계 설정(안)을 마련했고, 5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읍·면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마을 간 경계가 설정되면 구역문제에 의한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